

‘2연속 위닝시리즈’ KIA, 이번주 상승세 잇는다



10~12일 광주 삼성전...13~15일 창원서 NC전
31승 1무 30패 리그 7위...투·타 고른 활약 기대

KIA타이거즈가 이번 주 순위 상승을 위한 승수 쌓기에 나선다.
KIA는 지난주 주중 두산베어스에 위닝시리즈를 달성한 뒤 주말 한화이글스를 상대로도 2승 1패를 거뒀다. 그 결과 31승 1무 30패로 리그 7위를 기록, 승패마진을 플러스(+1)로 전환함과 동시에 5할 승률(0.508)을 회복했다.
현재 KBO리그 순위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리그 1위 LG트윈스는 2위 한화와 1.5게임차를 유지하고 있다. 3위 롯데자이언츠부터 7위 KIA까지는 2.5게임차 이내로 점접이다. 이번 주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 판도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
KIA의 경우 삼성·NC와 경기를 치르는 만큼 승수를 추가한다면 중상위권으로의 도약이 충분히 가능하다. 상승세를 이어갈 KIA의 타선 분위기는 좋다.
지난주 경기 기간 타율 OPS(출루율+장타율)

0.761으로 4위를 기록했다. 홈런 또한 6개로 LG·NC와 함께 공동 2위에 자리했다.
그동안 부진을 겪었던 최원준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그는 지난주 6경기에서 28타수 11안타 1홈런 4타점 타율 0.393으로 맹활약했다. 불안했던 수비도 조금씩 회복 중인데다, 지난 4일 두산과의 경기에서는 홈런포를 쏘아 올리며 팀의 8-3 승리에 기여했다.
부상에서 돌아온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 역시 타격감을 찾아가는 중이다. 그는 지난주 6경기에서 23타수 7안타 2홈런 타율 0.304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지난 4일 두산전 홈런에 이어 6일 한화전에서 솔로 아치를 그리며 팀의 3-2 승리를 이끌었다. 뿐만 아니라 오선우와 윤도현 등 기존 백업 자원 역시 제 몫 이상의 활약을 펼치며 팀 타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마운드 역시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극심한 컨디션 난조를 겪었던 윤영철은 지난 6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6이닝 3피안타 7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올 시즌 첫 승이자 지난해 6월 21일 이후 350일 만에 켈리타스타트(6이닝 3자책점 이하·QS)를 달성했다.
김도현 또한 지난 5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7이닝 5피안타 7탈삼진 1실점으로 패투를 펼쳤다.
이외에 루키 성영탁 등의 활약은 물론 정해영 역시 분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KIA는 주중 경기를 삼성과 치르



게 된다.
삼성은행은 현재 34승 1무 29패 승률 0.540으로 리그 4위에 위치했다. 평균자책점은 4.01로 KIA(4.24)를 웃돌고 있다. 타격 지표 또한 타율 2위(0.266), 출루율 3위(0.349), OPS 2위(0.765) 등

으로 KIA를 웃도는 중이다. 올 시즌 상대 전적도 5승 2패로 KIA에게 강한 모습이다.
광주-기아 챔피언스연에서 만난 삼성은 최원태를 10일 선발로 내보낸다. 이에 KIA는 제임스 네일을 선발로 투입한다.

삼성과의 일정을 마친 KIA는 주말 창원에서 NC를 상대한다.
KIA가 이번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순위 상승을 이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최형우, KBO 5월 MVP... 최다·최고령 경신

개인 통산 6번째 트로피...양현종·박병호 제치고 1위
41세 5개월 24일...이호준 NC감독 기록 2년 이상 넘어

KIA타이거즈 최형우가 KBO리그 역대 월간 최우수선수(MVP) 최다 수상, 최고령 기록을 경신했다.
KBO는 9일 “최형우가 2025 신한 SOL뱅크 KBO 리그 5월 월간 MVP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형우의 월간 MVP 수상은 지난 2017년 5월 이후 8년 만이다.
이날 월간 MVP 수상으로 개인 통산 6번째 트로피를 수집한 최형우는 양현종(KIA)·박병호(삼성 라이온즈·이상 5회 수상)를 제치고 최다 수상 기록을 달성했다.
또 40세 이상 최초 월간 MVP를 받으며 최고령 기록도 갈아치웠다.
최형우는 이날 기준 41세 5개월 24일에 상을 받아 이호준 NC다이나믹스 감독이 가지고 있던 기존 최고령 기록(2015년 5월 MVP·39세 3개월 26일)



을 넘어서 최고령 월간 MVP가 됐다.
최형우는 기자단 투표 총 36표 중 19표(54.3%), 팬 투표 60만5631표 중 12만1124표(20%)를 획득해 총점 37.14점으로 한화이글스 외국인 투수 코디 폰세를 제쳤다. 폰세는 기자단 투표 3표, 팬 투표 28만7062표로 총점 27.99점을 얻었다.
최형우는 5월 한 달 동안 각종 타격 지표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타율 0.407 장타율 0.721 출루율 0.505로 각 부문 1위에 올랐다. 장타율과 출루율을 더한 OPS도 1.226으로 압도적인 1위에 올랐다. 또한 안타 35개로 공동 3위, 타점 23개로 5위에 올랐다.
25경기에 출전해 10번의 멀티히트를 쳤고, 5월 13일 광주 롯데전부터 5월 30일 수원 kt전까지 1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기도 했다.
5월 MVP로 선정된 최형우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트로피가 전달될 예정이다. 타이틀 스폰서인 신한은행은 최형우의 모교인 전주고등학교에 200만원의 기부금을 기부한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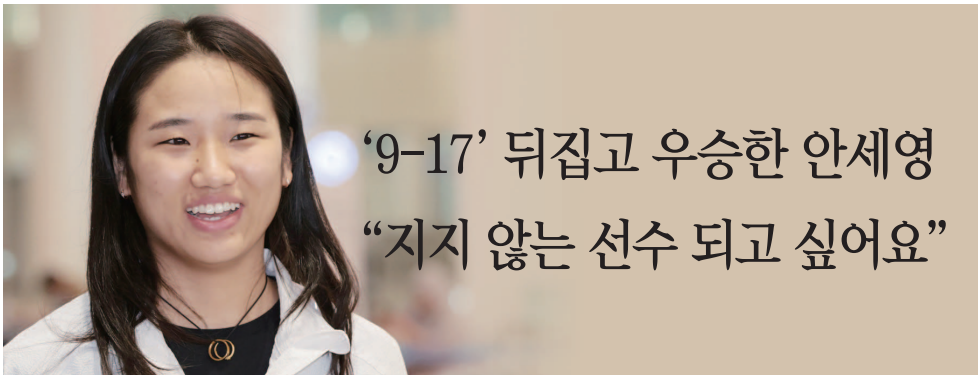
‘재정건전화 미준수’ 광주FC, 12일 상벌위 회부

지난해 23억원 당기순손실...순익분기점 지표 미달성
이정호 감독, 기자회견서 심판 거명 관련 징계 결정도

프로축구 광주FC와 이정호 감독이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된다.
9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재정 건전화 규정을 지키지 못한 광주FC와 기자회견서 심판의 이름을 언급하며 불만을 토로한 이정호 감독에 대한 상벌위원회가 12일 오후 개최된다.
광주는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 약 2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정건전화 제도(순익분기점 지표)를 준수하지 못했다.
지난해 도입된 재정건전화 제도는 각 구단이 현실성 있는 예산안을 제출했는지를 따져 구속력 있는 조치를 내리는 제도다. 모기업·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수익 구조를 바꾸고, 선수단 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적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재무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순익분기점 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광주에 상벌위 회부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결국 받아들여졌다.
재정 건전화 규정을 지키지 못해 상벌위에 회부될 시 해당 구단에는 벌금 부과, 선수 영입 금지, 승점 삭감 등으로 징계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팀이 2부로 강등될 수도 있다.
앞서 광주는 이와 관련 “구단은 2025년부터 재정 건전화율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과 자체 수입 확대를 통해 더 이상의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채무도 연차별로 상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에는 이정호 감독에 대한 징계 논의도 진행됐다.
이 감독은 지난달 2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울산 HD와 16라운드

를 경기(1-1 무승부) 후 기자회견에서 주심의 이름을 거명해 지적받았다.
이 감독은 해당 심판이 주심을 맡은 경기에서 주축 선수들이 연이어 다쳤다며 아쉬움을 애둘러 털어냈다.
이날 센터백 변준수가 경기 막판 눈 위가 찢어지는 부상으로 그라운드를 떠났다. 이후 경기 감독관 회의에서 이정호 감독에 대한 징계 필요성을 따져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결국 상벌위 회부를 피하지 못했다.
이정호 감독이 주심 이름을 언급하면서까지 판정에 예민하게 반응한 데 이유가 있다.
지난 3월 22일 포항 스틸러스와 홈 경기에서 센터백 조성권이 경기 막판 공중볼을 다투다가 어정원과 충돌한 뒤 중심을 잃은 채 그라운드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강한 충돌로 선수가 잠시 정신을 잃었는데도 반칙이 나오지 않자 이정호 감독은 주심에게 강하게 항의했고, 끝내 옐로카드를 받았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9-17’ 뒤집고 우승한 안세영
“지지 않는 선수 되고 싶어요”
패배의 문턱까지 몰렸으나 극적으로 경기를 뒤집고 우승을 차지한 베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삼성생명)은 ‘불패 선수’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세영은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올해 들어 아직 패배가 한 번뿐인데, 정말 지지 않는 선수가 되고 싶다”며 “내 목표는 항상 최고 정상에 오르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은 전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끝난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인도네시아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기적 같은 뒤집기 한판으로 왕즈이(중국·2위)를 꺾었다.
1게임을 13-21로 내준 안세영은 2게임도 9-17로 끌려가 패색이 짙었다.
하지만 특유의 승부사 기질을 발휘해 19-18로 역전하더니 2게임을 21-19로 따낸 후 기세를 몰아 3게임에서도 21-15로 이기면서 최종 승자가 됐다.
안세영은 “초반에 경기가 안 풀렸는데 코치

김혜성, 빅리그 첫 3루타에 커쇼 살린 호수비

1안타 2타점으로 타율 0.414...다저스 7-3 승리에 일조

김혜성(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빅리그 첫 3루타를 작렬하며 존재감을 뽐냈다.
김혜성은 9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방문 경기에 9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 2타수 1안타 2타점을 남겼다.
시즌 타율은 0.414(58타수 24안타)로 올랐고, 타점 2개를 더해 시즌 9타점이 됐다.
김혜성의 빅리그 1호 3루타는 2회 첫 타석에서 나왔다. 팀이 1-0으로 앞선 1사 1. 3루에서 타석에 선 김혜성은 세인트루이스 오른팔 선발 마이클 맥

그리비의 3구째 몸쪽 높은 커터를 잡아당겨 우익수 쪽 깊숙한 타구를 날렸다.
앞선 주자 2명은 모두 홈을 밟았고, 김혜성은 빠른 발을 앞세워 3루에서 세이프 판정을 받았다.
다저스는 세인트루이스에 7-3으로 승리하고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를 지켰다.
김혜성은 수비에서도 하이라이트 영상을 남겼다. 3회 2사 후 메이신 원의 외야 최중간 깊숙한 타구를 정확한 타구 판단으로 워싱턴맥 근처에서 잡아낸 뒤 펜스에 충돌했다. 다저스 선발 클레이턴 커쇼는 김혜성의 호수비에 활짝 웃으며 글러브를 들어 보여 감사 인사했다.
연합뉴스